



슈발리에, 그의 시대에..

슈발리에 신부님의 삶 부르주 신학교에서 줄은 에밀 모쥬네와 샤를르 뵘뵘롱 등 몇몇 동료 학생들과 친분을 쌓았습니다. 그는 잘 훈련되고 견고한 영성을 지닌 열정적인 한 그룹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이기주의와 무관심에 맞서 싸울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Rules 1857; Meditations for each day of the year, according to the Spirit of The Sacred Heart, vol.1)

슈발리에 신부님의 말씀 인류는 서로 다른 구성원들로 이루어져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피와 몸으로 형성된 하나의 몸, 즉 한 몸입니다. 이 몸의 모든 지체에게 생명을 주시는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만이 우리를 하느님과 일치시킵니다. 우리가 서로에게서 멀어지는 순간, 우리는 예수님이 근원이신 거룩한 생명과 함께 인간 형제애의 참된 느낌을 잃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 거룩한 마음은 다른 모든 마음을 끌어당기는 중심입니다.

(Article in The Messenger of the Sacred Heart of Jesus, vol. 7, June 1865; p. 529)

오늘날을 위한 슈발리에...



모든 사람에게 "하느님의 마음을 보여 주는 것", 그것은 실제로 육화한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공생활 기간 동안 행하신 일입니다... 슈발리에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 그분은 어디에서나 변함없는 온화함과 자비로운 부드러움을 보여 주시고, 이는 가장 단단해진 마음도 어루만질 수 있습니다; 그분은 누구도 쫓아내지 않으십니다. 작은 자, 힘 있는 자, 가난한 자, 죄인들이 모두 그분 주변에 모입니다..."

(예수 성심에 관한 원고, MSC 원천, 시리즈 1, 4권, 147쪽)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느님의 사랑, 놀랍고 변화시키는 그 사랑을 보여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하느님이 사랑의 하느님이라는 것을 믿게 해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Fifteen Days Prayer with Jules Chevalier, p.20).

"오너라"하고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분의 부르심에 응답한 슈발리에와 그의 형제들은 예수님 마음의 사랑을 나누기 위해 어디든 "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Ametur ubique (온 세상에서 사랑받으소서)!" (묵상 1권, 517쪽).



슈발리에, MSC

선교 열정을 마음에 품은 이

1824-2024

오늘 날을 위한 슈발리에 ...

슈발리에 가족의 일원으로서 우리도 그들과 같이 우리의 모토를 실천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이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해서는 불확실성과 불안감의 도전, 우리의 안전지대를 벗어나는 도전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종종 현실의 다양한 한계와 우리의 나약함을 직면하게 됩니다. 이러한 도전에 직면할 때, 무엇이 우리에게 사명을 계속할 수 있는 힘을 줄까요? 우리는 하느님의 사랑을 신뢰합니까, 아니면 우리의 능력에 더 의존합니까?

오늘 우리는 하느님의 사랑에 대한 더 깊은 믿음으로, 예수님 마음의 부르심에 응답하도록 초대받았습니다. 슈발리에 신부님과 함께 우리는 성모님처럼 응답합니다:..."여기 주님의 종이 있사오니,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소서." 그리고 성 베드로처럼 "...주님께서 명하시니 그물을 던지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Missio ad gentes, p.94).



이달의 기도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님,
당신의 영으로 우리에게 창조주 하느님과 모든 인류를 위한 당신의 사랑을 주십시오.
그리하여 언제 어디서나 모든 상황에서
우리가 당신의 사명을 사심없이
관대하게 수행하면서
당신의 뜻을 따르게 하소서.

위기의 순간에,
주님의 영께서 우리에게 하느님의 사랑을
더 깊이 신뢰하도록 힘을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다시
이세상에서 하느님의 사명을 위한
열정과 사랑으로 가득 차게 하소서.
아멘.

(from 100 Prayers, no.6)

